

'2019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 MBC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19.12.18	대전MBC 대회의실	6	7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 김병구 위원, 양홍모 위원, 이규홍 위원, 임정규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신원식 사장, 이재근 경영기술국장, 박선자 편성국장, 신영환 보도국장, 서주석 미디어 전략국장, 정수진 방송기술센터장, 임세혁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5	4	-	-	9	-	9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7	2	-	9

다. 전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1 건	11 건	
편성	시사 프로그램 신설	향후 개편시 인력 여건을 감안하여 논의 예정 <19.12월 조치>	'19.11월
교양	<오롯이 당신> 음악성 뛰어난 가수 섭외	제작진 전달 <19.12월 조치>	'19.11월
교양	<내가 그리는 세상> 청년층의 시각 수용	제작 프로그램에 반영 <19.12월 조치>	'19.11월
교양	<건강플러스> 주제와 연관된 오프닝	제작진 전달 및 개선 계도 <19.12월 조치>	'19.11월
보도	<노정렬의 시시각각> 패널의 성비 균형 필요	패널선정시 성비 균형에 대한 제작진에 대한 개선 전달 <19.12월 조치>	'19.11월
보도	<공영 주차장> 생활 속 뉴스 확대	현재 관련 뉴스 취재 진행중 <19.12월 조치>	'19.11월
보도	<천안 일봉공원> 기사의 객관성 견지	기사 작성시 유의하고 있으며, 객관성 견지중 <19.12월 조치>	'19.11월
보도	<ADD 폭발사고> 대학 연구실에 대한 안전 뉴스 필요	뉴스에 반영 <19.12월 조치>	'19.11월
보도	취재원 중복	취재원 다양화 지시 <19.12월 조치>	'19.11월

보고	미세먼지, 금강보 연관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보고 <19.12월 조치>	'19.11월
보고	보다 전문적인 날씨 운영	날씨 진행 개선 <19.12월 조치>	'19.11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성명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 사항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대전 MBC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 월간 운영실적 및 회의록 전문공개	인터넷

나. 시청자위원 명단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김선재	배재대학교 총장	한국컨텐츠학회	문화단체	19.05.01 ~ 20.04.30
부위원장	권부남	대전 청소년 위캔 센터장	대전YWCA	청소년단체	19.05.01 ~ 20.04.30
위원	김종남	대전YMCA 사무총장	대전YMCA	소비자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학부모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양선희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관련단체	19.05.01 ~ 20.04.30
위원	김병구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9.05.01 ~ 20.04.30
위원	박상민	정보철강(주) 부사장	미래경영인모임	경제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서한나	잡지 Boshu 편집장	청년 고리	문화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이규홍	안정성평가연구원 본부장	한국독성학회	과학기술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대전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	19.05.01 ~ 20.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편성	<p>1. 교양 : 내가 그리는 세상</p> <p>7일 방송된 내가 그리는 세상, 떠나자 대전 원도심으로! 는 배재대 학생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원도심의 추억이 담겨 좋았습니다. 차분한 어조로 원도심을 잘 소개했고, 아이들과 같이 가볼만한 관광명소도 흥미를 끌었습니다. (박상민)</p> <p>내가 그리는 세상, 독도탐방기, 우리의 영토 독도는 영상미는 부족했지만,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요, 7일 방송된, 떠나자, 대전 원도심으로! 편은 소재는 중복의 느낌이지만, 제작의 차별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14일 방송된 기묘한 이야기 학교에서... 는 드라마 형식의 기묘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주말 아침에 보기에선 적절하지 못한 시도로 생각됩니다. (양선희)</p> <p>내가 그리는 세상은 거칠기는 하지만 정규 방송과 달라 오히려 신선함이 있습니다. 7일 방송된 떠나자 대전원심으로 편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김종남 위원)</p>	<p>시간이 가면서 프로그램의 수준이 조금은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반 시청자들이 보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이라는 취지를 이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생 제작자들과 좀 더 소통해 한층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		
편성	<p>2. 교양 : 생방송 아침이 좋다</p> <p>지난 11월 26일 방송된 부분을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유익한 내용으로 채워져 즐겁게 시청하였습니다. 마을탐구 생활에서 숨겨진 대전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특히 유익했는데, 회덕정을 소개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권부남 부위원장)</p>	<p>항상 지역에 천착하는 소재를 방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매진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편성	<p>3. 교양 : 전국이 보인다</p> <p>14일 전국이 보인다에서는 대전의 이야기인 시립미술관의 이야기를 다뤄 흥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 점은 한 프로그램 내에서 자막이 전부 달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재 위원장)</p>	<p>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타 지역사에서 제작한 제작물을 모아 방송하고 있습니다. 특성상 제작 포맷이나 자막 등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바랍니다.</p>		○	
교양	<p>4. 교양 : FM모닝쇼</p> <p>주변에서 대전MBC 라디오 FM 모닝쇼를 많이 듣고 있고, 코너로 운영되는 떡도 먹은 경험이 있는데, 프로그램중 우리말 찾기 코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너가 재밌기는 한데, 조금 어렵다는 평이 많습니다. 어려운 우리말보다, 상식이나 힘이 되는 글귀 등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며, 보다 쉽고 아름다운 단어를 찾아 보았으면 합니다. (권부남 부위원장)</p>	<p>담당 제작자, DJ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의 여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시청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꾸리도록 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5. 보도 : 노정렬의 시시각각</p> <p>8일에 방영된 노정렬의 시시각각, 서해안 유류피해 12년,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반도 130만명의 국민들의 자원봉사가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서해안 환경이 얼마나 복구되었는지, 궁금했는데, 구석구석 세심한 부분까지 소개해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상부분에서 10% 보상에 그쳤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p> <p>환경의 중요성을 알린 점은 좋았지만, 법적 경제적 대응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안도 이야기 되었으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상민)</p> <p>저도 시시각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면, 그간 지역의 이슈들을 잘 다루었다. 고 생각합니다. 특히, 8일 방송된 서해안 유류피해 12년은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고 리마인드 할 수 있어서, 각별히 관심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종남 위원)</p> <p>노정렬의 시시각각, 천안 일봉산 개발 논란에서는 패널들 간의 호흡은 좋았지만, 시민대책위, 관련 교수만 출연하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시청의 행정담당등이 출연했으면 보다 심도 깊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패널이 나와서, 자료를 제시할 때, 시청자들은 확인이 안되는 부분은 정확한 클로즈업이나, 별도로 촬영후 편집 등의 작업으로 후처리 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선희)</p> <p>저는 노정렬의 시시각각을 꼼꼼하게 시청해 보았습니다. 15일 방송된 김용균 노동자 1주기 문제를 유익하게 시청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어찌면 이 사건의 본질일 수 있는데, 초반에 이러한 문제가 언급이 없어 답답하다가, 후미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와 가까스로 균형을 이룬 느낌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안배부분을 신경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p> <p>그리고, 연말에는 시시각각에서 이제까지 어떤 문제를 다루었나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합니다. 한국 여성 80%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청년층, 여성층의 이야기를 좀 더 다루었으면 합니다. (서한나 위원)</p> <p>한가지 시시각각에 제안을 드리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관련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시시각각에서 지난 10월의 부동산문제를 한번 다뤘는데, 이를 좀더 심화시켜,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우리 지역의 부동산 문제를 한번 다루 보았으면 합니다. (박상민)</p> <p>시시각각의 경우, 좋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이 많은데, 제목만 나와있어 아쉽습니다. KBS 대전총국과 비교해보면, 더 심각한데, 방송 내용을 첫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주었으면 합니다. (김선재 위원장)</p>	<p>패널에 대해서는 보다 프로그램 적합한 패널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시수치나 통계 부분은 시청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력을 높이겠습니다. 기계적인 성비 균형이 아니라 프로그램 주제에 맞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찬반 갈등이 심한 이슈의 경우에도 균형감 있는 진행을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보도</p>	<p>6. 보도 : 선거보도</p> <p>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보도와 선거 관련 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보도도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선거보도에 있어서, 대전MBC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이 중원의 승부처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 너무 전형적인 표현이면서, 게임이나 전쟁과 비교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유권자들은 이런 단어에 염증이나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른 용어나 표현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9일 방송된 전국 청년상인 네트워크 통합워크숍 대전개최 뉴스의 경우, 기자의 리포팅과 영상이 사로 맞지않아 어색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뉴스 제작시 멘트와 영상이 좀 더 매칭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양선희)</p> <p>선거보도 관련해서 청소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연령 18세로 내리는 것에 관해서 보다 심도있게 다뤘으면 합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생각처럼 마냥 어리지만은 않습니다. 투표 연령 하향의 문제도 함께 다루었으면 합니다. (권부남 부위원장)</p>	<p>선거보도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용어 선택에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p> <p>선거연령 하향 입법화에 따른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27일 기준)</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7. 보도 : 뉴스 배치, 편집</p> <p>12월 11일 뉴스데스크에서 민식이법 통과와 관련 대전과 충청의 비교 기사는 지역의 관점에서 뉴스를 다루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날 뉴스중 아쉬웠던 점은 국방과학연구소 사건이후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는데, 노조 결성과 관련 합법 불법 문제 다루고, 폭발사고 문제 원인 오리무중이라는 기사가 연이어 보도 되어, 폭발사고와 노조 결성문제를 순서를 바꾸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권부남 부위원장)</p> <p>12일 방송된 원자력 안전연구소 블라인드 채용관련 뉴스에서 중국 국적자 채용 관련 상반된 인터뷰 2개가 연이어 방송되었는데, 상반된 인터뷰로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상반된 의견을 담은 인터뷰를 서로 대조 시킬때, 대부분은 '문제 있다', '문제 없다'의 대립구도로 대비시키는데, 문제 있다는 측의 인터뷰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대비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배열이었습니다. (양선희)</p>	<p>국방과학연구소(ADD) 폭발 사고 수사는 아직 결론나지 않고 있지만, 속보를 주기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조 결성을 둘러싼 합법성 논란도 의미있는 노동 관련 뉴스로 판단해 우선 순위를 정한 뒤 뉴스 배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블라인드 채용 문제 리포트에서 채용 관련자들의 주장을 담은 인터뷰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원 부장 인터뷰는 채용후 빚어진 혼선에 관한 입장을 듣는 것이고, 연구노조 간부 인터뷰는 연구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블라인드 채용의 문제점을 다룬 것으로, 인터뷰 사이에 찬반 또는 대조 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외국인 연구원 채용을 두고 민감한 원자력 연구 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연구원 측은 해당 합격자의 지원 분야와 무관한 연구를 맡기겠다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p> <p>◀인터뷰▶ 서민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소통협력부장 "원자력 (시설) 해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기타 많은 분야에서 보안이나 기밀 누설과 관련 없는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p> <p>2년 전, 고용노동부가 공정한 인재 채용을 위해 공공기관에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p> <p>워낙 많은 지원자의 자질을 일일이 가려내기에 정보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이유입니다.</p> <p>◀인터뷰▶ 최연택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 "관련 연구 논문이라든가 연구 분야,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이 이력 사항에 들어있는데 (검증이 어렵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보도</p>	<p>8. 보도 : 청소년, 문화 다양성</p> <p>13일 방송된 뉴스중에서 문화다양성 조례안의 경우 이슬람과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 시각은 너무 편협하고 편중된 시각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김종남 위원)</p> <p>기리고, 12월은 수능이후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시기이고, 교육정책이 바뀌는 중간이라서, 입시와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보다 다루었으면 합니다. (김종남 위원)</p>	<p>문화다양성 조례안 뉴스는 대전시의회를 상대로 제기된 문제와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해당 기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p> <p>문화적 다양성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에서 지난 15일 가결 처리됐지만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습니다.</p> <p>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안에 대해 일부 단체가 동성애나 이슬람 문화를 옹호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p> <p>이에 대해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수정발의하는 등 신중하게 논의한 것을 끝내 상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p> <p>한편 오늘 기독교단체와 보수단체 회원 2백여 명은 조례안 상정에 반대하며 시의회앞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상정되지 않자 별다른 충돌 없이 해산했습니다.</p> <p>교육 관련 아이টে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p>	○		
<p>보도</p>	<p>9. 보도 : 앵커 변동</p> <p>최근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휴가 때문인지, 주중 앵커가 자주 변동되고 있는데, 메인 뉴스 앵커로서의 연속성문제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합니다. (양선희)</p>	<p>휴가는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당사에서는 수년 전부터 연차휴가 소진촉진제도를 도입해 연말까지 개인의 연차휴가를 남김 없이 쓰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출연의 연속성 못지 않게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		